

# Inside ACA

2023년 7-8월

acaddc.org



## Vision

우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이주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는 사회를 꿈꿉니다.

## Mission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과 이주 아동들이 교육권리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 스탠포드 대학교 투어를 하고 있는 ACA학교의 탈북청소년

그동안 평안 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7월과 8월, 여름방학을 가졌습니다. 7월 3일부터 21일까지 Summer School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 교사들은 개인들의 사역들과 휴식을 통해 재충전 하고 8월 30일부터 학교에 다시모여 새 학기를 준비하였습니다.

30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받아 다문화선교 사역을 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며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함께 학교에서 사역을 하며 큰 도움을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

내주신 분들이며 감사한 분들이며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30년이라는 세월동안 사역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저를 파송한 삼버그 성결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8월 6일 삼버그 성결교회에서 “선교동역 30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30년 다문화선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으로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할 일은 다음 세대의 젊은 일꾼들을 교육하며 세우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벌써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졸업생

들이 다시 돌아와 학교에서 교사로서 섬기고 있으며, 학교운영과 학업 커리큘럼 설정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7-8월호 소식지를 통해 저의 미국 방문과 저희 학교의 탈북 청소년 학생들의 미국방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의 다문화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며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4일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내년 여름까지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철, 김혜경 선교사 드림

# 다문화선교 30년!

**저**는 1993년 2월에 삼버그 성결교회로(구 시카고 성결교회) 부터 파송을 받아 동두천으로 와서 30년 동안 다문화선교를 해 왔습니다. 1993년부터 1999년 8월까지의 방과 후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 위주로 사역을 했었고, 1999년 9월부터는 Amerasian Christian Academy(ACA)라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초, 중, 고등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사역을 오늘 날까지 해 왔습니다.

ACA학교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자신들의 장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중언어(다중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들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게 해 주며 성인이 되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학생들을 꾸준히 교육을 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들이 모여 (현재 14개국) 함께 어울리고 존중하며 배려해 주

는 것을 배워 나가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외면당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돌보며 돕는 그런 학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 높은 교육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에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주립 대를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다닌 두 명의 학생들이 교육학을 졸업하였고, 그 중에 한명은 대학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인턴을 1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배운 영어 교육이 미국으로 유학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미국 대학교에 가서도 여러 나라 학생들과 어울려 공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육 환경을 ACA학교가 제공해 준 것입니다.

30년 동안 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며, 꿈을 꾸게 해주며,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



▲ 1991년 제2차 다문화 단기선교로 동두천에 왔을 때 박성훈 형제와 Liberty Christian School 입구에서 찍은 사진

으로 창조된 학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소망이 없는 학생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며, 꿈이 없는 학생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최선을 다하는 학습 태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두천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학교에 열방이 모이게 하시며, 더 나아가 세계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선교동역 30년 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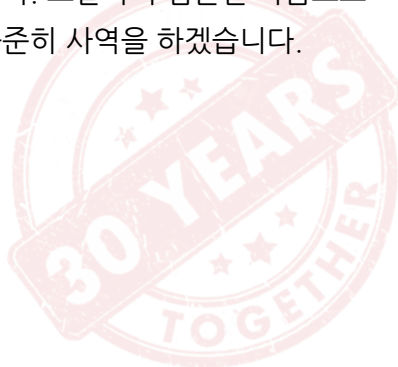
**파** 송교회의 초청으로 특별선교집회를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을 하였고 8월 6일 주일예배는 다문화선교 3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 동안 무엇인가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함께 저의 파송교회와 다문화선교를 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를 믿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해 주신 삼버그 성결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0년 전에 파송을 받는데 큰 도움을 주셨던 나운태 목사님과 이범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문화선교 30년을 기념하고자 저를 초청해 주신 박시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집회 기간 동안 30년 전 저와 단기선교를 함께 했으며 함께 다문화선교를 시작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형제, 자매님들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더운



▲ 30년 동안 다문화선교에 동참해 주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시카고에서 친교모임 / 삼버그 성결교회의 박시몬 목사님과 사모님

감사가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30년동안 행복했습니다.

다문화선교 30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문화선교의 최종 평과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사역을 하겠습니다.



## Vision Trip USA

###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미국 Vision Trip

**미** 국에서 북한선교 사역을 하시는 서예레미야 (NOVO NK 대표) 선교사님께서 저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탈북청소년 (중, 고등학생) 다섯 명을 미국으로 초청해 주셔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학생들이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Vision Trip의 목적은 탈북청소년들에게 미국에서 진행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하나님의 글로벌 비전을 갖도록 인도하여 다음 세대의 북한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영향을 미치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영성훈련, 언어훈련, 교육훈련, 문화체험을 통해 좀 더 넓은 시야를



▲ LA 샌페드로 항에서 역사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레인 빅토리호를 투어하는 학생들. 레인 빅토리호(SS Lane Victory)는 1950년 12월 6일 원산항에서 피라민 7,009명을 태우고 부산항에 도착한 군수 물자 수송 상선입니다.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예레미야 선교사님과 준비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머물면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습니다. 여러 대학교와 박물관, 도서관, IT 기업을 방문하고 투어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로 유학을 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했던 것은 미국의 여러 교회들이 탈북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방문했던 모든 교회들은 북한선교에 관심이 많았으며 탈북청소년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들도 탈북학생들을 장학금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명의 학생들 중에 어느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줄은 아직 모르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할 수 있는 교육수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 미국을 떠나기 하루 전 ACA 글로벌 하우스에서

다섯 명의 학생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3주였습니다. 글로벌 비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큰 꿈을 갖게 되었고, 소중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초청해 주시고 항공권을 포함해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신 서예레미야 선교사님과 사모님, NOVO NK 선교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 샌프란시스코 예수인교회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는 학생들
- Joshua Tree 국립공원에서
- UCLA 대학교



## 새 학년도 힘차게... 다시 모인 교사들

**작**년에 함께 교육 사역을 했던 교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학교에서 가르치고,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진행을 하였고, 성경공부와 친교시간을 함께 해 왔기에 더욱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여름 방학동안 자주 못 만났지만 새 학기를 앞두고 8월 28일에 서울 북촌지역을 투어 하며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새로운 교회(담임목사: 한홍) 고데이빗 교육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북촌투어와 함께 인사동에서 저녁식사 및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학교 청소와 교사 연수를 하였으며 9월 2일 학교 오픈 하우스를 통해 학부모님들을 만나 새 학기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2024 학년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 기도제목

1. 30년 동안 다문화선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동안 저희 부부에게 건강함을 주시며 사역에 대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2023-2024 학년이 9월 4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도하며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3. 새로 등록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4. 교사 성경공부, 친교시간, 기도모임을 통해 좋은 팀워크를 이루며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5.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건강의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6. 중학교 담임선생님이시며 중,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온라인으로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이번 학기부터 시작 하셨습니다. ACA의 학교 사역과 대학원 학업을 슬기롭게 병행을 하며 둘 다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 희망을 심어주세요.

후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merasian@mac.com  
jameskangmccann@gmail.com